

스웨덴인의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의 양상과 흐름*

김기수**

이름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신뢰감 형성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제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인이 주로 사용했던 이름의 변화 추이를 통해 이름과 정체성의 상관성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는 각 시기별 스웨덴인의 주요 이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스웨덴인의 이름의 변화추이는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중층적인 차원의 의미와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써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주제어: 이름, 정체성, 개인이름, 이름 짓기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강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1 연구의 배경

플라톤(Platon)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인 동시에 사회적 행위라고 보았다. 즉 이름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며, 신뢰감 형성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제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름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 미신, 사회적 질서 등에 관한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남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Ashley, 1989).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가에 따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 또는 역할 변화의 여지가 수반되기도 한다(강준만, 2006).

결국 이름은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일정한 정체성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름은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Aksholakova, 2014; Joubert, 199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이름과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면 개인은 물론 개인들이 모여 구성하고 있는 상위 공동체-국가나 ‘민족’-가 나타내는 정체성의 일단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문화의 여러 속성과 마찬가지로 단일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형성되면 불변하는 것도 아니며,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Olwig, 1992; Smith, 1992). 따라서 이름 역시 정체성 형성에 있어 고정적인 의미와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 및 맥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같이 세계화된 시대에는 이전에 비해 더욱 다변화된 요인-인종, 민족, 종교, 언어 등-에 의해 이름 역시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1.2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제도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되는 스웨덴은 바이킹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문명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는 하였지만,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의 하나로 꼽혔다(유럽정치연구회, 2004; Chang, 2002/2004).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은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그리고 이웃 노르웨이와 더불어 인구 대비 외부로의 이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로 꼽히기도 하였다(안병직, 1997; Chang, 2007/2007). 스웨덴은 이후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유럽연합의 성장이나 세계화 과정과 관련해서도 외부 문화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이제는 외부 이민(utvandring)보다는 유입 이민(invandring)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 사회에서의 이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그 이름들은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스웨덴 역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스웨덴인의 이름 역시 제반 상황이나 맥락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고, 거기에는 여러 차원의 의미와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웨덴인이 사용했던 주요 이름의 변화 추이와 그에 따른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이름과 정체성의 상관성에 관련한 상기한 문제제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1 연구의 범위

스웨덴의 ‘성명에 관한 법률(Lag om personnamn)’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사람의 성명은 성(efternamn), 개인이름(förnamn), 농장명(gårdsnamn)¹⁾을 의미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이중 첫 번째 이름인 개인이름(förnamn)이다(Skatteverket, 1992).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름도 이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남자(소년)의 이름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여성(소녀)들의 이름에는 보다 유연성과 자유, 관용이 허용되어 이름을 통한 정체성 문제는 여자에게 보다 남자에게 보다 강하게 표현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의 범위는 스웨덴 사람들의 이름에 있어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시기별²⁾ 사례로 구분하였다. 먼저 바이킹 시기 스웨덴인들의 이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남아있는 룬 비석(runestones; runstenar)에 새겨진 이름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다음으로는 크리스트교³⁾ 정서가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우세하였을 당시의 사례는 1638년 미국 델라웨어(Delaware)에 정착한 최초의 스웨덴 이민자들 이름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소수의 스웨덴계 핀란드인과 독일인, 네덜란드인 등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당시

- 1) 농장명은 해당 이름을 가진 자가 스웨덴 어느 농장 출신인지 혹은 어느 지역 출신 인지를 의미하는데, 스웨덴 일부 지방에서 여전히 사용되며 이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 농장명의 예로 ‘Busk’, ‘Nygårds’, ‘Klockar’, ‘Soldat’, ‘Tysk’, ‘Täpp’ 등이 있는데, 실제 개인이름(förnamn)은 아니지만 특별한 종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 맥락에 따라 종종 개인 이름으로 취급될 수 있음. 스웨덴 국제청 홈페이지, 2020년 5월 26일 검색.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0.4/362030.html>
- 2) 이 글에서의 시기 구분은 스웨덴의 역사적 시기를 고대(~1060년경), 중세(1060년경~1521년경), 근대(1521년~1914년), 현대(1914~)로 나눈 <변광수, 2006>의 구분에 따름. 시기의 분기점은 각각 바이킹활동의 종료와 스텐실 왕조의 성립(1066년경), 구스타브 바사의 등장과 칼마르동맹을 맺었던 덴마크 및 노르웨이와의 연합왕국 해체(1521년경), 제 1차 세계대전발발(1914년).
- 3) 본 연구에서 크리스트교는 가톨릭 및 종교개혁 이후 스웨덴에서 우세해진 프로테스탄트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함.

스웨덴인의 일반적 이름을 살펴보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19세기 스웨덴인의 이름은 스웨덴인의 이름과 관련된 연구책자의 자료를 통해 수집하기로 한다. 현대 스웨덴인의 이름은 이름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인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Linde, 1994)과 인구통계 관련 주무관청인 스웨덴 통계청(SCB; Statistiska centralbyrån)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에 의거하여 정리하되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21세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1.2.2 연구의 방법과 연구 문제

연구방법은 우선 상기한 시기별 주요 이름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한 후 주요 이름의 변화 추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외부요인(외래종교⁴⁾, 그리스·로마문화, 히브리문화 등)과 내부요인(고대 노르드어⁵⁾, 북유럽신화 등)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이름이 가지는 세 가지의 의미 유형(Watzlawik, Guimarães, Han, & Jung, 2016)⁶⁾, 즉 ‘어원적 의미(etymological meaning)’, ‘상징적 의미(signifying meaning)’, ‘특정 문화 내에서 획득된 역사성·상징성을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의 차원에 준해 스웨덴인의 주요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 시기별로 계량화한 자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름에 표현된 당대의 시대상 및 개인의 정체성 표현의 양상을 파악해 볼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기 이후 현대 스웨덴인의 이름과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⁷⁾’에 나타

4) 이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럽문화의 정립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유대교,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등 세 가지 종교를 스칸디나비아 외부로부터 유입된 종교라는 의미에서 외래종교로 칭함.

5) 고대 노르드어(고대 북유럽어)는 게르만어의 한 계파로 스칸디나비아 지역 거주민과 해외이주 정착민이 바이킹시대로부터 약 1300년경까지 사용한 언어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홈페이지, 2020년 5월 26일 검색. http://en.wikipedia.org/wiki/Old_norse

6) 원문: Bagby, L. & Sigalov, P. (1987). The semiotics of names and naming in Tolstoj's "The Cossacks".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31 (4), pp.473-489.

7) 세계 여러 나라의 제반 가치·사회, 문화, 종교, 정치 등-를 조사하기 위해 학자들이 설립한 비영리기구이자 1981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로 본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함.

난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을 참조하여 진행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스웨덴에서 시기별로 나타난 주요 이름의 유래와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한 이름의 유래 및 의미가 변화하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한 변화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상황과 맥락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인의 이름을 통해 전반적인 스웨덴인 혹은 스웨덴 사회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2.3 연구의 가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것은 역사적 시기나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른 양상의 정체성이 이름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Darlington, e2). 모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체성은 항구 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스웨덴인의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 역시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자는 기초적인 자료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먼저 스웨덴에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북유럽신화나 전설·영웅담 등에서 비롯된 이름들이 우세하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크리스트교가 전래되고 공인된 이후에는 성서나 크리스트교 성인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들이 대거 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 대외교류와 지식수준의 확장으로 인해 다른 언어권이나 다양한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름들도 등장하여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19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의 민족주의(또는 낭만주의)적 경향에 따라 크리스트교 도입 이전에 유행하던 이름이 우세해 지거나 스웨덴의 고유한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조장 또는 장려)하는 이름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넷째,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보와 문화 교류, 이주민 증가 등에 따라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이름들이 스웨덴 사회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2. 주요 개념과 선행연구

2.1 이름과 정체성

2.1.1 이름의 개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⁸⁾로 정의될 수 있다. 이름은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표시로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함께 묶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한다(정주리, 박영준, 서정곤, 최경봉, 2008). 이름을 무엇으로 정의하는 가는 그것을 운위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인 인간이나 생물, 장소, 물건 등을 지칭하는 특정한 소리의 조합’(Jones, 1990)으로 이름을 파악할 수 있다. 독일의 언어철학자인 레오 바이스게르버(Leo Weisgerber)에 의하면 우리가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인상만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주는 인상을 조직적으로 분류하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Weisgerber, 1994). 일본 작가 스지하라 야스오(辻原康夫)는 이름이 인간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긴 결정체이며, 한편으로는 언어, 종교, 습관 등의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적 산물이라고 정의한다(辻原康夫, 2008).

<논어(論語)> 제13편 자로(子路) 3장에는 공자(孔子)의 제자였던 자로가 정치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공자에게 묻는 대목이 있다. 이에 공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必也正名乎).”는 말로, 이름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孔子, 2008). 사마천(司馬遷) 역시 <사기열전(史記列傳)>에서 연나라 사람 채택(蔡澤)의 입을 빌어 몸과 이름이 모두 완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전한다(司馬遷, 2006). 조선왕조의 설계자였던 정도전도 <삼봉집(三峰集)>에서 “일은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한 다음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2020년 5월 27일 검색.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이루어진다.”며 공자가 표명했듯 이름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기도 하였다 (김삼웅, 2004).

이름이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고대로부터 널리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인들은 단어가 단순한 발화 이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 영광과 모욕, 행운과 불행 등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며, 나아가 그 단어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이름 역시 토지나 금 같은 것으로까지 이해될 정도였다고 한다(Jones, 1990). 고대 이집트인들은 좋은 이름은 행동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파악하였고, 이는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 제 28장에 “좋은 이름은 영혼의 보석과 같다.”(Feldman, 1959)라는 언술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으로 인간은 육체, 영혼, 이름으로 형성된다고 여겨 사람의 이름에 대해 주술하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는 신앙도 있었다고 한다(辻原康夫, 2008).

또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는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Ashley, 1989).”라고 이야기 하면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은 이름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는 “몸은 비록 평온 속에 묻히지만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Jones, 1990)”고 하여 이름이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름은 개인에게 있어 인간 자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으며, 그에 따라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살아남는 천부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름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2.1.2 정체성의 개념

<철학사전(Dictionnaire philosophique)>의 ‘정체성(Identité)’ 항목에 볼테르(Voltaire)는 이렇게 썼다. “이 용어는 ‘같은 것’을 의미할 뿐이다. 달리 ‘동일성’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을 덧붙여 놓았다. “그러므로 인격의 동일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오로지 기억이다(Grosser, 2002).”

‘정체성(identity)이란’ 용어를 널리 사용하여 확산시킨 사람은 덴마크 출신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으로, 그 자신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어려워하면서 자아 정체성(ego-ident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체성이란 타인에 대해 자신이 갖는 동일성 및 연속성과 부합되는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Erikson, 1959).” 자기가 아닌 타자에 의한 확인과 증명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에릭슨의 관점은 정체성이란 단어가 ‘확인하다(identify)’란 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김용석, 이재민, 표정훈, 2004).

정체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한 인정이 개인에게 있어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Wong, 2002)⁹⁾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지시(혹은 명명)와 그에 따른 인식은 문명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Feldman, 1959). 이와 관련해 에릭슨은 정체성을 완성되거나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적응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Erikson, 1968). 또한 정체성은 자기의 단일감, 연속감, 불변감, 독자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대상이나 집단 및 그 성원과의 사이에서 인정된 역할의 달성, 공동가치관의 공유를 매개로 얻는 연대감, 안정감에 기초를 둔 자존감 및 자기상을 의미하기도 한다(박아청, 1984). 아프리카계 미국 지식인 코넬 웨스트(Cornel West) 역시 소속되고자 하는 열망과 안전에 대한 갈망 등 정체성에 연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Sardar, 2002).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정체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것인 만큼 정체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문화적·언어적 요인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 사회의 정체성은 ‘사회 내의 맥락 속에서 존재(김정우, 2006)’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에릭슨 자신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개념과 주변 요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다소 혼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9) 원문: Taylor, C. (1992).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Gutman, A. (eds.) *Multicultu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32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사회심리학자로 평가되는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은 에릭슨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정체성을 사회 정체성, 개인 정체성, 자아 정체성으로 분류한 바 있다(강준만, 2007)¹⁰⁾. 그러나 현재까지도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각각의 개념 규정은 물론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세 가지 차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논의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2009년 ‘포천(Fortune)’ 인터뷰에서 “여러분은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가집니다(You have one identity).” 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이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각기 다른 이미지로 기억되는 시대는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종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니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강준만, 2016a)¹¹⁾.”

그러나 저커버그의 주장과는 달리 사람의 정체성을 단 하나로만 환원해 파악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저명한 레바논계 프랑스 작가인 아민 말루프(Amin Maalouf)는 그런 시도가 “사람들에게 편파적이고 과당적이고 불관용적이고 남을 지배하려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살적이기도 한 태도를 심어놓는다(강준만, 2016b)¹²⁾”고 주장한다.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역시 수많은 정체성 중 오직 하나의 정체성에만 의거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조잡한 지적 활동이며, 그런 단일 정체성의 환영은 대결을 획책하는 사람들의 폭력적 목적에 봉사하며, 박해와 학살의 명령자들에 의해 능란하게 양성되고 선동된다는 생각이다(강준만, 2016b)¹³⁾.

10) 원문: 박길성(2003).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고려대학교 출판부, 166쪽

11) 원문: Pariser, E. (2011). 생각 조종자들(이현숙/이정태 역). 서울: 알기, 145쪽

12) 원문: Maalouf, A. (1998/2006). 사람 잡는 정체성(박창호 역). 서울: 이론과 실천, 43쪽

13) 원문: Sen, A. (2006/2009). 정체성과 폭력(이상환 역). 서울: 바이북스, 277-278쪽

2.2 주요 선행연구

2.2.1 이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자신의 저작들에서 이름과 사물의 본질에 관한 언급을 자주 하였다. 그는 ‘이름은 징조이다(nomen omen)’(Eco, 2004/2008) 또는 ‘이름은 사물의 궁극(nomina sunt consequentia rerum)’(Eco, 1980/2005)이라 표현하면서 이름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이름(nomen)’이라는 것은 ‘법(nomos)’에서 유래하여 사람들 간의 ‘약정(placitum)’에 따라 부여된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Eco, 1980/2005). 에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람들 간의 약정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될 수도 있겠다. 아울러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느끼는 정체성의 내적변화, 혹은 정체성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볼 때도 사람들 간의 약정이라는 관점에서 지니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Falk, 1975).

스코틀랜드 출신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프레이저(Sir James J. Frazer)는 이름에 관해 현재까지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그는 이름을 영혼과 믿음의 환생과 연관시켜 생각하였다(Feldman, 1959). 프레이저는 고대인들이나 현대의 미개인들은 이름을 사람 그 자체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영역, 삶의 순간들, 그리고 주술이 통하는 잠재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Frazer, 1998).

이름과 정체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일차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1933년 히틀러는 독일민족의 아이들은 독일식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린 적도 있다(Ashley, 1989). 히틀러의 이 포고령은 이름 스타일은 우리의 개성을 크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차원이 도입되었다. 이중에서는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인들의 이름 짓기와 이스라엘 정체성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유민생활을 했던 조상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히브리 식 이름 짓기가 당시 이스라엘에 널리 퍼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Falk, 1975).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름이 인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행동과 습관, 혹은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이름은 문화적 정체성의 뱃지(given name is a badge of cultural identity)’(Vanguri, 2016)라는 표현에 걸맞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아래에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아프리카 가나의 아산티(Ashanti)족 사이에서의 이름과 습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무척 흥미로운 내용을 전한다. 각 요일이 가지는 특정한 주술적 성격이 해당 요일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 해당 요일의 명칭이 포함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반영되고, 본인 역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일의 성격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Deluzain, e3; Deluzain, e5).

개인의 인식과 취향이 이름이 사용되는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찰스 주버트(Charles E. Joubert)의 연구(1993)는, 일반적인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강하며,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보통 소년의 이름은 소녀의 이름에 비해 보다 더 전통적이며, 음소결합에 따른 요인과 참신함이라는 요인은 소년보다는 소녀의 이름 선택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한국, 브라질, 독일) 간 이름 짓기 과정의 차이점과 각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비교연구(Watzlawik et al., 2016)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생물학적 의미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을 독특하게 구별하는 표지로 기능하는데, 이름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영국 레스터대학(University of Leicester)의 제인 필처(Jane Pilcher)는 ‘이름 짓기의 사회학(sociology of naming)’이라

부를 수 있을 새로운 연구 분야를 통해 각 개인의 이름과 개인의 신체가 지니는 관계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연구(2016)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성욱(2016)은 현대 이라크에 거주하는 앗시리아인들의 이름 찾기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름의 패턴이 시간을 거치며 자발적 또는 강압적 이유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고대 앗시리아 이름의 증가가 앗시리아 민족주의 운동의 성장과 함께 일어난 현상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학생의 이름과 학생의 정체성 및 자아에 관한 관계에 집중한 연구들도 있다. 미국 뉴올리언즈 툴레인 대학교(Tulane University)의 게리 가우드(Gary S. Garwood)는 선생님들을 일정한 학생들을 선호하는 이름과 선호하지 않는 이름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하게 하고 그에 따른 심리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선호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 역시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웨스트 버지니아 웨슬리 대학(West Virginia Wesleyan College)의 올로 스트렁크(Orlo Strunk)는 개인의 이름과 자아개념 사이의 관계를 비교연구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못한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Deluzain, e4).

2004년 뉴욕주립대학 행동과학자 존 존스(John Jones)와 브렛 펠햄(Brett Pelham) 연구팀은 ‘덴티스트(dentist)’와 비슷하게 들리는 이름들(예를 들면 ‘데니스; Denis’)의 목록을 만들고 미국 인구통계에 따른 남자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이름이 데니스인 치과 의사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존스와 펠햄은 그 밖에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비슷한 주로 이사하며,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직관에만 의존해 판단하라고 하면, 대개 자기 이름의 첫 글자와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제품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강준만, 2014).¹⁴⁾

이렇듯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이름과 유사한 문자를 가진 직업이

14) 원문: Cialdini, R. (2007/2008). 설득의 심리학 2(윤미나 역). 서울: 21세기 북스, 136-141쪽

나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리켜 ‘이름 효과(name-letter effect)’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1987년 사회심리학자 요제프 누틴(Jozef M. Nuttin)이 제시한 개념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암묵적 자존감(implicit self-esteem)’이 그 원인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강준만, 2014). 이러한 이름효과를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미래에 관한 개인의 기대들이 그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자기 이행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sy)’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강준만, 2005).

3. 스웨덴인의 이름

3.1 스웨덴에서의 이름

3.1.1 이름의 개념

스웨덴 아카데미의 단어집(Svenska Akademiens Ordböcker)에서는 이름을 ‘특정한 사람이나 동물을 특별하게 지정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särskilt språkligt uttryck som används för att entydigt utpeka viss person eller visst husdjur)’이자 ‘특정한 현상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särskilt språkligt uttryck som används för att entydigt utpeka viss företeelse)’으로 정의한다¹⁵⁾. 스웨덴 ‘성명에 관한 법률(Lag om personnamn, 2016:1013)’ 제1조에 따르면 스웨덴인의 전체 이름은 성(efternamn)¹⁶⁾, 개인이름(förnamn)¹⁷⁾,

15) 스웨덴 아카데미 단어집 홈페이지, 2020년 5월 26일 검색. <https://svenska.se/tre/?sok=namn&pz=1>

16) 개인의 친족 관계나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개인이름 뒤에 붙이는 이름. 스웨덴 아카데미 단어집 홈페이지, 2020년 5월 26일 검색. <https://svenska.se/so/?id=10724&ref=knr465542>

17) 개인에게 붙이는 개별적 이름. 스웨덴 아카데미 단어집 홈페이지, 2020년 5월 26일 검색. <https://svenska.se/so/?id=15838&ref=xnr163328>

농장명(gårdsnamn)으로 이루어진다¹⁸⁾. 동 법률 제26조에 따라 아동의 부모는 생후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이름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는 ‘성명에 관한 시행령(Förordning om personnamn, 2017:120)’ 제 2조 및 제3조에 따라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이 관장하고 있다(Högman, e6).

3.1.2 스웨덴에서의 이름 짓기

어느 문화에서도 이름을 짓는 데는 일정한 사회적 또는 문화적 형식과 압력이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제는 가족이다(Bouchard, 2001/2005). 이름 자체에는 종교적,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아이의 행복을 기원하고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양육자가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개인의 정체성은 상징화되는 것이다(Falk, 1975).

한편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전체 시스템에서의 분류를 통해 그것에 상응하게 하고, 유사성과 상이함에 기초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름 짓기의 과정은 국가나 문화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부모의 개인적 기준 및 특성, 문화적 전통에 따라 이름을 선택하게 된다(Watzlawik et al., 2016)¹⁹⁾. 그리고 부모는 당대에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기대하며 그 이름에 다시금 자신들의 꿈을 담고자 부심하게 마련이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데 있어 더 좋은 의미를 담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자신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김정우, 2006).

크리스트교가 널리 전파된 중세 이전 게르만 문화권에서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제각기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Reitz, 2004/2006). 게르만인의 이름은 사람들이 이 두 어간이 각각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를 잘 구분하여 기억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이 합성요소들 가운

18) 스웨덴 국회 홈페이지, 2020년 5월 26일 검색.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20161013-om-personnamn_sfs-2016-1013

19) 원문: Lieberman, S., & Bell, E. O. (1992). Children's first names: An empirical study of social tas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pp.511-554.

데 하나를 빌려 친자(親子)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흔한 관례였던 것이다 (Bloch, 1940/2001).

게르만 인들이 이름을 짓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야생 동물 가운데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자질을 갖게 하기 위해 아이에게 동물과 관련된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다. ‘베르나르트; 베르나르(Bernard)’는 힘센 곰(Bern-hard)에서, ‘베르트랑트; 베르트랑(Bertrand)’는 피바른 까마귀(Bert-chramn)에서, ‘볼프강(Wolf-gang)’은 아주 오랫동안 걷는 늑대에서 나온 것이다(Rouche in Ariés, Duby, & Veyne, 1985/2002).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 이름의 일부와 어머니 이름의 일부를 합해 사용하는 것이다(辻原康夫, 2008).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이 ‘에드워드(Edward)’, 어머니 이름이 ‘엘프리트(Ælfflæd)’라면 그의 아들은 ‘엘프워드(Ælfweard)’로 짓는 식이다. 바이킹 시대 이전 스칸디나비아인들 역시 다른 게르만 문화권에서의 이름 짓기와 유사하게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이름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Healfdene’, ‘Hrothgar’, ‘Hrothulf’ 등이 있으며, 특히 두음 ‘h-’로 시작하는 이름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김석산, 1976; 이동일, 2001).

바이킹 시대에 이르러 스웨덴인들은 신의 이름이나 자연의 속성에서 비롯된 이름을 선호하였다(박영배, 2000a; 박영배, 2000b). ‘Tor’, ‘Nanna’, ‘Gudrun’, ‘Sten’, ‘Ulf’ 와 같은 이름이 그것이다(Martenius). 아이슬란드의 시인이자 역사가였던 스노리 스투루손(Snorri Sturlusson)은 1225년에 쓴 ‘윙링아 사가(Ynglinga saga)’에서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스웨덴인들이 신들의 이름이나 속성을 의미하는 말에 맞춰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梅田修, 2006).

그러나 바이킹 시대를 거쳐 스웨덴에도 크리스트교가 확산되면서 사도 및 선지자, 성인들이 각광받게 되었다(Avenberg, e1; Högman, e7).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사람들이 의지할 수호자로서, 삶의 모델로서 숭배되며 그들의 이름이 널리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梅田修, 2006). 당시의 상황을 두고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는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 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요한, 베드로, 마태오가 되었다.”고 평한 바 있기도 하다 (Rouche in Ariés et al., 1985/2002).

종교개혁을 통해 의례가 아닌 성서 자체에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인명의 출처로 사람들은 구약성서에서 근거를 찾게 되었다. 아브라함, 엘리야, 사무엘, 벤자민 등이 대표적으로, 이 이름들은 청교도의 전통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도 인기 있는 이름으로 꼽힌다(梅田修, 2006).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마리아 신앙이 부정되어 마리아에게 영향을 받은 이름이 급속히 쇠퇴한 바 있다. ‘Maria’라는 이름은 17세기 초 짧게 유행한 후 현재까지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이 되었다(Martenius, e8).

17세기에 들어와 스웨덴인의 이름에 있어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그전까지 어린이들이 보통 하나의 이름을 부여받았던 데에 비해 이후에는 두 개 이상의 첫 이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다(Jonmyren, 2004). 이는 외국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상류계급에 국한되었다가 점차 확산되어 19세기에는 농민들 사이에서도 2~3 개의 첫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흔하게 나타났다고(Cronberg, 2010).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개인적 정체성의 확산과 성장에 관해 연구한 알랭 코르뱅(Alain Corbin)에 따르면, 이름 붙이는 방식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보다 뚜렷해 졌다고 한다(Corbin in Ariés, Duby, & Perrot, 1987/2002). 그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회가 의도적으로 고무한 집중적 경향, 즉 위대한 성인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교회의 권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더불어 이름이 가지는 유행의 주기도 짧아졌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가족 내부의 이름을 이어받는 규범이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가중되는 도시화, 문자해독율의 진전과 학교 교육의 확산 역시 개인의 이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그는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 스웨덴에서도 1800년대 이후 문자해독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Hobsbawm, 1975/1998), 스웨덴인들이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보다 새롭고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경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Jonmyren, 2004).

3.2 스웨덴에서 주요 이름의 변화 추이

3.2.1 바이킹 시대의 이름

바이킹은 대략 8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중반까지 유럽 전역이 해안과 내륙은 물론 서쪽으로는 그린란드(Greenland)와 북아메리카까지, 동쪽으로는 비잔틴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Constantinopolis; Istanbul)와 바그다드(Baghdad)에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을 정도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였다(주경철, 2009; Cohat, 1987/1997; Simons, 1965/1983; Graham-Campbell, 1980). 바이킹들은 자신들의 행적이나 친구, 부모, 가족을 기리는 내용의 비석을 곳곳에 세웠는데, 스웨덴에 남아 있는 바이킹 시절의 룬 비석은 약 2천여 개로 매우 다양하고 그 내용도 무척 풍부해 고대 스웨덴 사회와 문명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Fellows-Jensen, 1995). 비록 그 내용이 무척 간략하고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룬 비석은 바이킹 시절 당시의 유물이자 1차 자료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Jansson, 1966).

이중 약 200여 개의 룬 비석은 바이킹의 모험이나 외국과의 교역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당시 번성하던 비잔틴제국을 (용병이나 상인, 혹은 관리로) 다녀왔던 스웨덴인 63명의 이름이 거론된 비석 약 30여개가 남아 있어 바이킹 시대 스웨덴인들의 이름을 파악해 볼 수 있다(Viking, e9). 세부적으로 보면 ‘Ásbjörn’과 ‘Ásmundr’가 각각 2명이고, 이들 이름에 공통된 요소인 ‘Ás’가 포함된 이름인 ‘Ásgautr’과 ‘Áskell’가 각각 1명이다. 그리고 ‘Gunnarr’가 2명이며, ‘Gunnleifr’가 1명이다. ‘Halfdan’과 ‘Ingifastr’ 역시 각각 2명이며, ‘Ingimundr’, ‘Ingvarr’이 1명씩이다. 그리고 뱀을 의미하는 ‘Orm’이 공통으로 포함된 이름 ‘Ormgeirr’, ‘Ormika’, ‘Ormr’, ‘Ormulfr’가 각각 1명, ‘Sveinn’이 2명, ‘Þorsteinn’이 3명이며, ‘Þorkell’, ‘Þórir’가 각각 1명이다. 나머지 37명은 공동의 이름요소가 겹치지 않고 각각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3.2.2 근대의 이름

1600년대 전반기는 스웨덴 역사상 강대국 시대의 서막을 알린 시점으로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을 북미 신대륙으로 보내 식민지를 개척하도록 하였다(Weibull, 1993). 아래의 <표 1>은 1638년 스웨덴이 북미 식민지로 개발한 미국 델라웨어주(Delaware)에 정착한 초기 이민자 총 694명 중 여자 28명을 제외한 666명의 남자들의 이름 중 많은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1638년 스웨덴인들의 주요 이름

이름	Anders	Johan	Peter ²⁰⁾	Olof ²¹⁾	Lars	Hendrick	Hans	Nils	Jöns	Sven
인원(명)	51	47	44	37	36	31	28	20	19	17

출처: Craig, 1996

19세기 스웨덴인들의 이름에 관한 통계는 스웨덴의 서지학자이자 이름연구가인 롤란드 오테르보르크(Roland Otterbjörk)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표 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2> 19세기 후반 스웨덴인들의 주요 이름

1875년	이름	Karl	Johan	Gustaf	August	Erik	Oskar
	비율(%)	18.4	16.6	8.2	7.5	5.7	5.5
1888년	이름	Karl	Gustaf	Johan	Fredrik	Vilhelm	Erik
	비율(%)	9.4	7	5.8	4.5	3.9	1.9
1900년	이름	Karl	Erik	Gustaf	Johan	Nils	Oskar
	비율(%)	16.5	10.7	9.8	8.6	5.1	5.1

출처: Otterbjörk, R., 1975: 51-59

20) Pieter 3명 포함.

21) Olle 1명 포함.

3.2.3 현대의 이름

스웨덴 통계청에서는 스웨덴인들의 이름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20세기 이후 스웨덴인들의 주요 이름에 관한 <표 3~5>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의 자료 ‘Förnamn, de 100 vanligaste efter födelseår och tid’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스웨덴 통계청에서는 ‘통상명(tilltalsnamn)’²²⁾에 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성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식적인 개인이름인 ‘förnamn’만을 다루고 ‘tilltalsnamn’ 부분은 제외한다.

<표 3> 20세기 전반기 스웨덴인들의 주요 이름

순위	1925년			1950년		
	이름	인원(명)	비율	이름	인원(명)	비율(%)
1	Karl	286	8.6%	Erik	3,285	4.5%
2	Erik	278	8.3%	Lars	3,222	4.4%
3	Lennart	169	5.1%	Lennart	2,777	3.8%
4	Sven	154	4.6%	Anders	2,576	3.5%
5	Nils	152	4.6%	Karl	2,453	3.3%
6	Gustav	149	4.5%	Gunnar	2,392	3.2%
7	Gunnar	139	4.2%	Christer	2,308	3.1%
8	Bertil	128	3.8%	Jan	2,257	3.1%
9	Olof	122	3.7%	Olof	2,159	2.9%
10	Arne	107	3.2%	Göran	2,121	2.9%
전체		3,331			73,785	

22) 여러 개의 개인이름이 있을 경우 가장 선호하는 이름. 스웨덴 아카데미 단어집 홈페이지, 2020년 5월 26일 검색. <https://svenska.se/tre/?sok=Tilltalsnamn&pz=1>

<표 4> 20세기 후반기 스웨덴인들의 주요 이름

순위	1975년			1995년		
	이름	인원(명)	비율	이름	인원(명)	비율
1	Karl	4,380	4.6%	Karl	5,941	6.7%
2	Johan	4,075	4.3%	Erik	5,274	5.9%
3	Lars	3,551	3.8%	Johan	2,777	3.1%
4	Per	3,448	3.7%	Alexander	2,502	2.8%
5	Erik	3,314	3.5%	Oskar	2,303	2.6%
6	Fredrik	3,252	3.5%	Gustav	2,122	2.4%
7	Anders	3,185	3.4%	Mikael	2,054	2.3%
8	Mikael	3,125	3.3%	Lars	1,933	2.2%
9	Daniel	3,022	3.2%	Per	1,855	2.1%
10	Andreas	2,622	2.8%	Viktor	1,842	2.1%
전체		94,257			89,234	

<표 5> 21세기 스웨덴인들의 주요 이름

순위	2005년			2019년		
	이름	인원(명)	비율	이름	인원(명)	비율
1	Karl	5,381	7.4%	Karl	3,332	6.8%
2	Erik	4,707	6.4%	Erik	2,651	5.4%
3	Oskar	2,092	2.9%	Nils	1,775	3.6%
4	Gustav	1,993	2.7%	Alexander	1,322	2.7%
5	Alexander	1,981	2.7%	Oskar	1,230	2.5%
6	Nils	1,901	2.6%	Lars	1,132	2.3%
7	Johan	1,684	2.3%	Gustav	1,046	2.1%
8	William	1,668	2.3%	William	1,022	2.1%
9	Axel	1,465	2.0%	Mikael	987	2.0%
10	Emil	1,409	1.9%	Hugo	906	1.9%
전체		73,016			48,757	

4. 스웨덴인의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의 양상

4.1 각 시기별 주요 이름의 유래와 의미²³⁾

4.1.1 전근대 시기의 주요 이름

바이킹 시대의 주요 이름 다섯 개 모두 고대 노르드어에 기원을 둔 이름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신화와 전설, 영웅담에서 비롯된 이름이 대부분이다. 주요 이름의 의미 역시 남성 자체나 남성성의 상징인 힘과 용맹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근대 스웨덴인의 주요 이름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비롯된 이름이 스칸디나비아 식으로 변형된 경우가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Olof’라는 이름만이 북유럽 조어에 기원을 둔 이름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6세기 초 종교개혁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계열 국가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주요 이름 모두 성경이나 성인의 이름에 연결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크리스티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표 6> 전근대 시기 주요 이름의 유래와 의미

구분	이름	유래	의미
바이킹 시대	Borsteinn ²⁴⁾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토르신의 돌
	Ásbjörn ²⁵⁾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신의 꿈
	Gunnarr ²⁶⁾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신의 전사
	Halfdan ²⁷⁾	고대 노르드어	절반의 덴마크인
	Sveinn	고대 노르드어	소년, 젊은이
1600 년대	Anders ²⁸⁾	외래종교, 그리스어	남자답다, 용맹하다
	Johan ²⁹⁾	외래종교, 그리스어	신은 인자하시다

23) 별도의 설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름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래의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함. <http://www.behindthename.com> <http://www.nordicnames.de>

Otterbjörk, R. (1975). *Svenska Förnamn*. Stockholm: Esselte Studium

Peterson, L. (2007). *Nordiskt runnamnslexikon*. Uppsala: Uppsala Universitet

1880 년대	Peter ³⁰⁾	외래종교, 그리스어	돌
	Olof ³¹⁾	고대 노르드어	자손
	Lars ³²⁾	라틴어	라우렌툼 사람
	Karl ³³⁾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자유인
	Gustaf ³⁴⁾	고대 노르드어	고트족의 지팡이
	Johan	외래종교, 그리스어	신은 인자하시다
	Fredrik ³⁵⁾	고대 고지독일어	평화의 지배자
	Vilhelm ³⁶⁾	고대 고지독일어	의지의 수호자

- 24) ‘Þórr(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의 신 토르)’ + ‘steinn(돌)’
 25) ‘áss 또는 oss(신)’ + ‘björn(곰)’
 26) ‘gunnr(전투)’ + ‘harjaR(전사, 군대)’. 북유럽 신화에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전사들이 영생을 얻어 안락하게 지내는 이상향으로서 발할라(Valhöll/Valhalla) 라는 공간이 등장하는데, 죽은 전사를 발할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전사이자 신들의 전령 역할을 하는 발퀴리(Valkyrja/Valkyrie)임. 바그너(Richard Wagner)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로 유명해진 발퀴리 ‘브뤼힐드(Brynhildr)’의 남편 이름이 바로 ‘Gunnarr’임.
 27) ‘halfr(반, 절반)’ + ‘dan(덴마크인)’
 28) 그리스어 ‘andrei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권의 ‘Andrew’에 해당하며, 스칸디나비아 변이형으로는 ‘Anders’나 ‘Andreas’가 많이 사용됨.
 29) 히브리 이름인 ‘Jochanan(신은 인자하시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Ioannes’가 라틴어화하여 ‘Johannes’가 된 것으로,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Johannes’, ‘Jon’, ‘Jan’ 등으로 사용하며, 영어권의 ‘John’과 같음.
 30) ‘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etros’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름임. 스웨덴에서는 ‘Per’, ‘Pär’, ‘Peer’, ‘Pehr’ 등의 변이형이 사용되기도 함.
 31) ‘anu(조상, 선조)’ + ‘laibaR(후계자, 자손)’
 32) ‘Lars’는 고대 이탈리아의 도시 ‘라우렌툼(Laurentum)’에서 온 사람’을 의미하는 라틴어 이름 ‘Laurentius’의 스칸디나비아 변이형으로, 영어권의 ‘Laurence’에 해당함.
 33) 북유럽신화에서 헤임달신(혹은 리그신)은 각각 노예, 농민, 족장의 집을 방문하여 환대를 받은 후 주인 부부 사이에서 잠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 후 각 집의 안주인은 아들을 낳는다. ‘karl’은 이 중 농민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으로 강인하고 유능하며 자유로운 사람을 의미하였고, 평상시에는 농민으로, 전투 시에는 주력 전투원으로 활동함(Crossley-Holland, 1980/2005; Davidson, 1969/2004; Dersin, 1998/2004; Gaiman, 2016/2017; Simpson, J. 1987/2003).
 34) ‘gautr(고트족: Gautland, Götaland, Gothia, Gotland)’ + ‘stafir(지팡이)’. 지팡이는 지배자나 통치자의 의미와 통하는 것으로 ‘Gustav’로도 사용함.
 35) ‘fridu(평화)’ + ‘rihhi(부, 힘, 지배자, 통치자)’. 영어권의 ‘William’에 해당함.
 36) ‘willo(의지, 소망)’ + ‘helm(투구, 보호)’. ‘Wilhelm’으로도 사용함.

19세기 말의 스웨덴인의 이름 분포에서는 고대 노르드어에서 유래한 이름이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대 노르드어와 뿌리를 같이 하는 고지 독일어에서 유래한 이름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여 라틴어화한 이름은 ‘Johan’만이 주요 이름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화와 전설에서 비롯된 이름과 그리스도교적 이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바이킹 시대와 같이 힘과 용맹, 그리고 지배 등을 의미하는 남성성이 강하게 부여된 이름이 다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1.2 현대의 주요 이름

(1) 20세기 전반기

<표 7> 20세기 전반기 주요 이름의 유래와 의미

구분	이름	유래	의미
1925년	Karl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자유인
	Erik ³⁷⁾	고대 노르드어	영원한 지배자
	Lennart ³⁸⁾	고대 고지독일어	위대한 사자
	Sven	고대 노르드어	소년, 젊은이
	Nils ³⁹⁾	외래종교, 그리스어, 라틴어	승리자
	Gustav	고대 노르드어	고트족의 지팡이
	Gunnar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신의 전사
	Bertil ⁴⁰⁾	고대 고지독일어	현명한 자
	Olof	고대 노르드어	자손
	Arne ⁴¹⁾	고대 노르드어	독수리, 새

37) ‘aina(유일한)’, 혹은 ‘aiwa(영원한, 한결같은) + ‘rikiar(지배자, 통치자)’

38) 고대 고지독일어 ‘lewo(사자)’ + ‘hard (강력한, 힘센)’가 결합된 ‘Leonhard’의 스칸디나비아 변이형.

39) 그리스어 ‘Niko(승리)’와 ‘laos(사람)’이 결합된 라틴어형 ‘Nikolaus’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Niklas’와 ‘Nils’는 스칸디나비아 변이형. 4세기 경 활동하면서 산타클로스의

1950년	Erik	고대 노르드어	영원한 지배자
	Lars	라틴어	라우렌툼 사람
	Lennart	고대 고지독일어	위대한 사자
	Anders	외래종교, 그리스어	남자답다, 용맹하다
	Karl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자유인
	Gunnar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신의 전사
	Christer ⁴²⁾	외래종교, 라틴어	크리스트의 제자
	Jan	외래종교, 그리스어	신은 인자하시다
	Olof	고대 노르드어	자손
	Göran ⁴³⁾	외래종교	농부

20세기 전반기 스웨덴인의 이름 분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고대 노르드어 및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한 이름이 주요 이름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도 스칸디나비아 식 또는 스웨덴 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기는 스웨덴에 있어 이름의 ‘신고전주의(En ny namnklassicism)’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 상기한 표를 통해서 보듯이 바이킹 시절에 유행했던 이름이 다시 부활한 점에서 그러한 표현이 적확한 것임을 알 수 있다(Otterbjörk, 1975).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크리스트교적 특성을 가진 이름이 주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반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남성적 성향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유래가 된 성 니콜라스 이후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변형되어 사용됨.

- 40) 고대 게르만어 ‘beraht(밝은, 유명한)’에서 비롯된 고대 고지독일어 인명 ‘Bertilo’ 또는 ‘Berthold’의 스칸디나비아 변이형.
- 41) 독수리를 의미하는 고대 노르드어 ‘arn’에서 비롯되었으며 ‘Arni’ 로도 사용함,
- 42) 크리스트의 제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이름 ‘Christianus(Christian)’의 스칸디나비아 변이형으로 ‘Christen’, ‘Kristen’, ‘Kristen’ 등으로 사용하기도 함.
- 43) 농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이름 ‘Georgios(George)’의 스웨덴 변이형으로, 3세기에 순교한 성 게오르기우스 이후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변형되어 사용됨. 스웨덴에서는 ‘Jöran’, ‘Örjan’ 등으로 사용하기도 함.

(2) 20세기 후반기

<표 8> 20세기 후반기 주요 이름의 유래와 의미

구분	이름	유래	의미
1975년	Karl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자유인
	Johan	외래종교, 그리스어	신은 인자하시다
	Lars	라틴어	라우렌툼 사람
	Per	외래종교, 그리스어	돌
	Erik	고대 노르드어	영원한 지배자
	Fredrik	고대 고지독일어	평화의 지배자
	Anders	외래종교, 그리스어	남자답다, 용맹하다
	Mikael ⁴⁴⁾	외래종교, 히브리어	신을 닮은 자
	Daniel ⁴⁵⁾	외래종교, 히브리어	하느님은 나의 심판자
Andreas	외래종교, 그리스어	남자답다, 용맹하다	
1995년	Karl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자유인
	Erik	고대 노르드어	영원한 지배자
	Johan	외래종교, 그리스어	신은 인자하시다
	Alexander ⁴⁶⁾	그리스어, 라틴어	수호자
	Oskar ⁴⁷⁾	켈트어, 고대 노르드어	사슴의 친구/신의 창
	Gustav	고대 노르드어	고트족의 지팡이
	Mikael	외래종교, 히브리어	신을 닮은 자
	Lars	라틴어	라우렌툼 사람
	Per	외래종교, 그리스어	돌
Viktor ⁴⁸⁾	라틴어	승리자, 정복자	

44) ‘신을 닮은 자’를 의미하며 성서에 등장하는 대천사 ‘Mikha’el(Michael)’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웨덴에서는 ‘Mikael’, ‘Micael’ 등의 변이형으로 사용함.

45) ‘하느님은 나의 심판자’를 뜻하며,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Daniyyel(Daniel)’에서 유래함.

46) ‘수호자’ 또는 ‘방어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이름 ‘Alexandr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화 속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Paris)’의 별칭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짐.

47) 이 이름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음. 아일랜드 켈트어에서 유

20세기 후반기 스웨덴인의 이름 분포에서는 이전 시기까지 매우 유행하였던 이름들, 즉 고대 노르드어나 북유럽 신화에서 비롯된 이름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유행에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에 히브리어나 구약성서에서 유래한 이름이나 크리스트교적 유래를 가진 이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이름에 있어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두었던 남성다움에 대한 속성은 여전히 강력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3) 21세기

21세기의 이름 분포에서는 20세기 전반기까지 유행하였던 고대 노르드어나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한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는 점이 눈에 띈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이름들은 대체로 스칸디나비아 식 또는 스웨덴 식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다만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영어권 이름인 ‘William’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음이 흥미로운 점이라 할 만하다. 이름이 지니는 의미 차원에서 보면 신화와 전설에서 비롯된 이름과 종교적 성격을 가진 이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남성성을 의미하는 이름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전 시기와 매우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래했다는 설명에 따르면 ‘os(사슴)’와 ‘cara(친구)’가 결합된 이름으로 ‘사슴의 친구, 사슴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짐. 다른 유래로는 고대 노르드어 ‘áss 또는 oss(신)’와 ‘geirr(창)’이 결합된 이름인 ‘Ásgeir’가 영어권에서 ‘Oscar’로 변했다는 설명도 있음.

- 48) ‘승리자’ 또는 ‘정복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victor’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스칸디나비아 변이형.

<표 9> 21세기 주요 이름의 유래와 의미

구분	이름	유래	의미
2005년	Karl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자유인
	Erik	고대 노르드어	영원한 지배자
	Oskar	켈트어/고대 노르드어	사슴의 친구/신의 창
	Gustav	고대 노르드어	고트족의 지팡이
	Alexander	그리스어, 라틴어	수호자
	Nils	외래종교, 그리스어, 라틴어	승리자
	Johan	외래종교, 그리스어	신은 인자하시다
	William	고대 고지독일어	의지의 수호자
	Axel ⁴⁹⁾	외래종교, 히브리어	평화의 아버지
	Emil ⁵⁰⁾	라틴어	경쟁자
2019년	Karl	고대 노르드어, 북유럽 신화	자유인
	Erik	고대 노르드어	영원한 지배자
	Nils	외래종교, 그리스어, 라틴어	승리자
	Alexander	그리스어, 라틴어	수호자
	Oskar	켈트어, 고대 노르드어	사슴의 친구/신의 창
	Lars	라틴어	라우렌툼 사람
	Gustav	고대 노르드어	고트족의 지팡이
	William	고대 고지독일어	의지의 수호자
	Mikael	외래종교, 히브리어	신을 닮은 자
	Hugo ⁵¹⁾	고대 고지독일어	심장, 정신

49) ‘아버지’ 또는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름 ‘Avshalom(Absalon)’에서 유래함. 중세 덴마크에서 ‘Axelen’ 등으로 줄여 불렸던 것을 스웨덴에서는 ‘Axel’이나 ‘Acke’ 등으로 변형하여 사용함.

50) ‘라이벌’ 또는 ‘호적수’를 의미하는 라틴어 ‘aemulus’에서 유래된 로마시대의 가축 명 ‘Aemilius’로부터 시작된 이름으로, 스웨덴에서는 ‘Mille’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함.

51) ‘심장’ 또는 ‘마음’을 의미하는 고대 게르만어 ‘hug’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11세기 이후 영어권에서는 ‘Hugh’라는 이름으로 정착됨.

4.2 스웨덴인의 이름 변화 추이에 드러난 정체성 표현

4.2.1 전근대

바이킹들의 이름은 그 기원이 모두 고대 노르드어에 있었다. 바이킹 시대를 통해 스웨덴인은 인근 덴마크 인이나 노르웨이 인뿐만 아니라 멀리 슬라브 인, 비잔틴 인, 그리고 아랍 인들과도 많은 교류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유의 언어생활과 습관에 따라 자신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름의 유래는 대개 자신들의 언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의미 역시 자신들의 신화와 전설, 자연의 위대함에서 빌어 왔다는 것을 나타내며 힘과 용맹함 등 강한 남성다움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스칸디나비아 세계는 중세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지도에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유럽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다 (Tacitus, 98/2000).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험한 자연과 기후에 맞서면서 삶을 위한 힘든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의 강한 결속을 유발하였다(Crossley-Holland, 1980/2005). 개인 자신의 것보다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바이킹 시대 스웨덴인의 이름 역시 집단 정체성의 일환으로 여겨졌으며, 개인은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Wong, 2002).

그들이 견지했던 세계관 역시 그러한 생활을 반영하여 그리스·로마신화와는 다른 거칠고 투쟁적이며, 갈등이 난무하는 극히 인간적인 신화와 전설로 연결되었던 것이다(Simrock, 1882/ 1995/2004). 이름이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 신앙, 생활양식, 문화를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당시 바이킹들이 가졌던 이름 역시 그러한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이름이 종종 선과 악 모두와 활발하게 연결되어 매개활동을 한다고 여기기도 하였다(Feldman, 1959).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바램의 일환으로 용기와 힘을 의미하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킹 시대가 지나고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비로소 크리스트교적 유럽세계에 편입된다. 자연스럽게 스웨덴인의 이름에 있어서도 바이킹 시대의 전통적이고 강한 남성적 의미의 이름이 아닌 크리스트교적 성격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홍성표, 1999; Southern, 1952/1999). 하지만 이름 짓기에 따른 전통의 일방적인 쇠퇴와 몰락은 공동체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던바 크리스트교 측에서는 크리스트교적 요소과 스칸디나비아의 전통적 요소를 결합하여 일반인들이 새로운 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이름에 있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가 고대 노르드어에서 비롯되었지만 매우 오랫동안 높은 인기를 얻은 ‘Olof’라는 이름이다. 이는 스웨덴에서 처음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왕인 올로프 쉼트코닝(Olof Skötkonung)과 나중에 시성된 노르웨이의 왕 올라프(Olav II Haraldsson den Helige)⁵²의 이름이 비록 스칸디나비아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스칸디나비아의 크리스트교 확산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로 현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만큼, 크리스트교와 결합되면서 그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인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크리스트교 세계관에 충실한 이름들이 대거 유행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다른 언어권에서 유래한 일부 이름은 그 세력이 많이 약해진 반면에 고대 노르드어나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한 이름이 전체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고대 고지독일어에서 유래한 이름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이름의 의미 역시 바이킹 시대와 같이 힘과 용맹, 그리고 지배 등을 의미하는 남성성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시작된 민족주의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낭만주의적 민족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각 나라 고유의 신화나 영웅, 전설에 대한 관

52) 재위 기간(1016~1028) 중 분열되어 있던 노르웨이를 통일하고 신민들을 크리스트교로 개종시킨 왕으로 유명한데, 사후 노르웨이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중세를 통해 북유럽에서 제일가는 성군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교회가 스칸디나비아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음. 후에 교황 알렉산데르 3세(Alexander III)에 의해 1116년 시성됨(변광수, 2006)

심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그와 함께 크리스티교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건국의 영웅, 왕후귀족, 성인들의 이름이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梅田修, 1999/2006). 이와 관련하여 영어권의 ‘Mary’, ‘Elizabeth’, ‘William’, ‘Charles’, ‘Andrew’ 등 왕족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이름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졌다(Ashley, 1989).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도 19세기 초반부터 스칸디나비아의 제 민족들을 더욱 긴밀히 연결시켜 하나의 단일 국가를 이룩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일종의 국민운동이었던 스칸디나비즘(Skandinavism)이 대두한 바 있다(변광수, 2006).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인에게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유행하였던 이름이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낭만적이고 민족주의적 감성은 스웨덴인들의 이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그들의 언어로부터 비롯되고 북유럽 신화와 전설, 영웅담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전통적인 이름들이 다시 크게 유행하였던 것이다. 즉 ‘Karl’, ‘Erik’, ‘Gustav’ 등 전통적으로 왕이 널리 사용하였던 이름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반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이 통계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4.2.2 현대

<표 10> 현대 스웨덴인 주요 이름의 유래

구분	1925	1950	1975	1995	2005	2019
고대노르드어	7	4	2	4	4	4
북유럽신화	2	2	1	1	1	1
고대고지독일어	2	1	1		1	2
외래종교	1	4	6	3	3	2
그리스어	1	2	4	3	3	2
라틴어	1	2	1	3	3	3
히브리어			2	1	1	1
켈트어				1	1	1

<표 10>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세기 초에는 19세기 말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이름의 어원이 대부분 고대 노르드어 및 북유럽 신화에 기반하고 있었다(Helleland, Ore, & Wikström, 2012). 아울러 외국어나 외래종교에서 비롯된 이름 역시 스칸디나비아 식 또는 스웨덴 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이름의 황금기라 할 만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르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인들의 주요 이름에 다소간의 변화가 눈에 띄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통적 이름의 근간이라 할 고대 노르드어 및 북유럽신화에서 비롯된 이름이 점차 퇴조하는 한편 외래종교 및 외국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름들의 비율이 비슷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Wæver, 1992). 1925년 이후 유럽은 경제대공황 및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시기였다고 평가된다. 비록 스웨덴이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중립국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했다고는 할지라도 삶의 조건을 극도로 열악하게 강제하는 내외상황은 그들의 바이킹 시대 조상들이 경험했을 법한 어려움을 당대의 스웨덴인들에게도 안겨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가족 및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강화뿐만 아니라 종교에 의탁하게 되는 경향을 강화시키게 마련이다. 이를 반영하듯 제2차 세계대전 후 스웨덴인들의 주요 이름도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 11>은 현대 스웨덴인들이 종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계가치관조사’의 내용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인들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점차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 및 종교에 대한 신뢰도나 중요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비율로 긍정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종교적 유래의 이름이 현대 스웨덴인들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겠다.

<표 11> 현대 스웨덴인의 종교에 대한 태도

구분	시기	1989-1993	1994-1998	1999-2004	2005-2009	2010-2014
내용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비율(%)	부재함	46	38	41	41	50
	존재함	38	48	47	35	41
내용	교회에 대한 신뢰도					
비율(%)	매우 신뢰함	6	6	7	6	9
	보통 신뢰함	29	42	37	38	41
	조금 신뢰함	39	41	43	35	31
	불신함	20	8	11	14	16
내용	삶에 있어 종교의 중요도					
비율(%)	매우 중요함	10	10	11	9	8
	보통 중요함	17	20	24	16	18
	조금 중요함	38	43	42	37	38
	불필요함	33	27	22	36	34

출처: World Values Survey⁵³⁾

20세기 후반부터는 이전 시기까지 꾸준히 강세를 보였던 고대 노르드어와 북유럽신화에서 비롯된 이름의 유행이 급격하게 점차 퇴조하는 가운데, 외래종교 및 외국어로부터 비롯된 이름이 다양하면서도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20세기 후반기 이후 스웨덴인의 이름 분포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름이 가지는 전통적 의미와 성격에 관계없이 예전에는 이름분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 못했던 이름들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과, 몇 가지 이름에 집중되었던 양상에서 이제는 다양한 이름들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시기별 주요 이름이 전체 이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한 아래의 <표 12>에서 볼 수 있듯 1875년이나 1900년 상위 5개 이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로 상회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점차 비율이 줄어들어 현재는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3) 세계가치관조사 홈페이지 ‘online analysis-Sweden’ 내용 갈무리, 2020년 5월 26일 검색.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표 12> 시기별 전체 이름에서 상위 5개 이름이 차지하는 비율

구분	1875	1888	1900	1925	1950	1975	1995	2005	2019
비율(%)	56.4	30.6	50.7	31.2	19.5	19.9	21.1	22.1	21.1

이렇게 이름이 다양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스웨덴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겪고 있는 세계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Kegley Jr. & Wittkopf, 2004). 카리브해 출신의 영국 문화학자 스투어트 홀(Stewart Hall)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화는 한 문화 내에서의 정체성을 분리시키는 역할(Wong, 2002)⁵⁴⁾”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1995년 유럽연합 가입으로 유럽 내 다른 나라와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물적교류는 물론 인적·정보·사상의 교류까지 확장되어 보다 다양한 차원으로 세계관과 관심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Martiniello, 1997/2002). 거기에 외부로부터의 이민자들 역시 스웨덴 사회의 이름분포에 있어 다양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민자들의 이름에 있어 주류 스웨덴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나 주변의 권유 또는 주류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통의 스웨덴인들처럼 이름을 짓거나 기존의 이름을 스웨덴식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Cheang, 2008; Khosravi, 2012; Meyer, 2007)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 현대 스웨덴인들의 주요 이름의 속성이 여전히 주로 남성다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아래 <표 13>는 현대 스웨덴인들의 시기별 상위 10개의 주요 이름이 지니는 의미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도 스웨덴인들의 이름에서도 남성다움을 의미하는 내용이 압도적인 것임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현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인들의 이름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남성다움에 관한 의미가 우세하게 표현되어 왔다.

54) 원문: Hall, S.,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eds.) Hall, S., Held, D., Hubert, D., and Thompson, K. (1996).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Oxford: Basil Blackwell, p.628.

<표 13> 현대 스웨덴인 주요 이름의 의미

구분	1925	1950	1975	1995	2005	2019
사람, 남성	3	4	2	3	3	3
지배, 승리	2	1	2	3	4	4
동물	2	1				
전투, 용맹, 무기	2	2	2	2	2	2
지혜	1					
종교		2	4	3	2	1
기타						1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이름연구가인 레너드 애슐리(Leonard R. N. Ashley)는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상속자였으며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보다 진지하고 강하고, 성숙하고 독립성을 의미하는 이름들이 주어졌다고 주장한다(Ashley, 1989). 즉 남자들의 이름은 어느 나라나 문화권을 막론하고 대개 소유, 지도자적 자질, 힘 등을 나타내는 의미와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 결론

이름과 정체성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개인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회와 개인 사이의 상징적 계약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Wells, 1993). 산업화된 어느 사회에서라도 부모는 아이의 출생연월일과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의 이름은 사회적 공식기록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규칙과 관습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Tschaeppe, 2003).

유럽 사람들 이름은 대부분, 천년에 이르는 역사를 살아남아온 것이다. 그 가운데는 문명의 원류로부터 전해오는 것도 있다. 그 역사의 과정에서 많은 민족과 나라의 교류와 흥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름은 퍼져나가고,

바뀌어가면서, 다양한 의미와 성격을 더해 왔음은 분명하다(Bursell, 2007; Gallagher & Chen, 2008). 또한 각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층 풍부한 의미와 속성을 가지게 된다고도 할 것이다(梅田修, 1999/2006).

개인의 이름은 그가 가족 및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계급이 바뀐다든지, 결혼을 통해서든지, 국적을 바꾸는 것과 같이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게 된다(Falk, 1975).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집단 혹은 사회적 정체성 역시 천부적인 것은 아니다. 정체성은 눈동자나 머리카락, 피부색과 같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를 포함하게 된다(Wong, 2002).⁵⁵⁾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름을 통한 정체성 역시 더 이상 전통에 의해 보장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의 전통적 의미보다는 울림이 좋거나 마음에 드는 유명인의 이름을 본떠서 짓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21世紀研究會, 2000/2002).

스웨덴인의 이름 역시 천년을 아우르며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새로운 이름에 그 자리를 내준 이름도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차원의 문화와 정체성이 정립되고 변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언어와 신화에서 유래한 이름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범 유럽적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 우세한 시절도 있었고, 당대의 조류에 따라 다시 전통적 이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는 보다 다양한 관점과 정체성이 반영된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화시대의 정체성은 고정적이고 통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복잡적이고 다양한 것이 되며 나아가 더욱 정치적이 된다(Wong, 2002)⁵⁶⁾”는 스투어트 홀의 언급처럼,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써 스웨덴인들의 이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을

55) 원문: Williams, B., Identity and Identities, in (eds.) Harris, H. (1995). *Identity*, Oxford: Clarendon Press, pp.8-9.

56) 원문: Hall, S.,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eds.) Hall, S., Held, D., Hubert, D., and Thompson, K. (1996).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Oxford: Basil Blackwell, p.628.

것이다.

본 연구는 한 개인이 사용하는 이름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나아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나름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 이름의 기원과 그것이 포함하는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추하고 규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서술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 적용되는 범위와 방법에 있어 다소간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겠다. 먼저 획득 가능한 자료가 각 시기별로 양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그 자료 역시 동등한 조건 하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의 분석과 평가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역시 상당부분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 설정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겠다. 이는 이름과 정체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아직은 정서적이고 의미론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이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 다소간의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와 관련한 다양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연구의 범주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비교연구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본 연구과정을 통해 제기되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한글 원문

- 강준만(2005). 나의 정치학 사전.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준만(2006). 이름: 장미는 장미라 불려야 향기가 난다. 인물과 사상, 2006년 1월호, 71-77.
- 강준만(2007).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준만(2014). 이름 효과. 인물과 사상, 2014년 7월호, 39-42.
- 강준만(2016a). 생각의 문법.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준만(2016b). 왜 자꾸 “당신 80년대에 뭐했어?”라고 묻는가?: ‘운동권 체질’이 진보를 죽이는 이유. 인물과 사상, 2016년 4월호, 37-70.
- 김삼웅(2004). 정명사상과 오늘의 글쟁이들. 인물과 사상, 2004년 9월호, 153-165.
- 김석산 역(1976). 베오울프 外. 서울: 탐구당.
- 김용석·이재민·표정훈 편저(2004).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서울: 휴머니스트.
- 김정우(2006). 통신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의 양상. 사회언어학, 14(1), 1-23.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영배(2000). 바이킹족과 스칸디나비아어. 어문학 논총, 19호, 189-220.
- 박영배(2000). 스칸디나비아어와 영어. 영어학 연구, 6호, 65-98.
- 변광수(2006). 북유럽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안병직 외(1997).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서울: 까치.
- 유럽정치연구회 편(2004). 유럽정치. 서울: 백산서당.
- 이동일(2001). 북유럽의 정체성과 베오울프. EU연구, 9호, 29-51.
- 이성옥(2016). 앗시리아인의 이름, 정체성의 뱃지: 현대 이라크 앗시리아인의 이름 찾기. ACTS 신학저널, 32집, 277-308.
- 정주리·박영준·서정곤·최경봉(2008). 역사가 새겨진 우리말 이야기. 서울: 고즈윈.
- 주경철(2009). 문화로 읽는 세계사. 서울: 사계절.
- 홍성표(1999). 서양 중세사회와 여성. 서울: 느티나무.

2. 한글 번역 문헌

- 孔子(BC 450?/2008). 논어(김형찬 역). 서울: 홍익출판사.
- 司馬遷(BC 90?/2006). 사기열전(연변인민출판사 고전 번역팀 편역). 서울: 서해문집.
- 辻原康夫(2005/2008). 인명의 세계사(김미선 역). 서울: 창조문화.
- 梅田修(1999/2006). 뿌리 깊은 인명이야기(위정훈 역). 서울: 파피에.
- 21世紀研究會(2000/2002). 인명으로 보는 세계사(이영주 역). 서울: 시공사.
- Ariés, P., Duby, G. & Perrot, M. (eds.) (1987/2002). 사생활의 역사 4: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전수연 역). 서울: 새물결.
- Ariés, P., Duby, G. & Veyne, P. (eds.) (1985/2002). 사생활의 역사 1: 로마제국부터 천 년까지(주명철·전수연 역). 서울: 새물결.
- Bloch, M. (1940/2001). 봉건사회 I(한정숙 역). 서울: 한길사.
- Bouchard, C. B. (2001/2005). 중세 프랑스의 귀족과 기사도(강일휴 역). 서울: 신서원.
- Chang, H. J. (2002/2004). 사다리 걷어차기(형성백 역). 서울: 부키.
- Chang, H. J. (2007/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이순희 역). 서울: 부키.
- Cohat, Y. (1987/1997). 바이킹(김양미 역). 서울: 시공사.
- Crossley-Holland, K. (1980/2005). 북유럽 신화(서미석 역). 서울: 현대지성사.
- Davidson, H. R. E. (1969/2004). 스칸디나비아 신화(심재훈 역). 서울: 범우사.
- Dersin, D. (Ed.) (1998/2004). 바이킹의 역사(이종인 역). 서울: 가람기획.
- Eco, U. (1980/2005). 장미의 이름 下(이윤기 역). 서울: 열린책들.
- Eco, U. (2004/2008). 로아나 下(이세욱 역). 서울: 열린책들.
- Frazer, J. G. (1890). Douglas, M. (eds.) (1978). 황금가지(이경덕 역. 1998). 서울: 까치.
- Gaiman, N. (2016/2017). 북유럽 신화(박선령 역). 서울: 나무의 철학.
- Grosser, A. (1996/2002). 현대인의 정체성(심재중 역). 서울: 한울.
- Hobsbawm, E. (1975/1998). 자본의 시대(정도영 역). 서울: 한길사.
- Martiniello, M. (1997/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윤진 역). 서울: 한울.
- Reitz, M. (2004/2006). 중세 산책(이현정 역). 서울: 플래닛미디어.

- Sardar, Z. (1997/2002). *문화연구*(이영아 역). 서울: 김영사.
- Simons, J. (1965/1983). *만족의 침입*(타임 라이프 편집부 역). 서울: 한국일보사.
- Simpson, J. (1987/2003). *유럽 신화*(이석연 역). 서울: 범우사.
- Simrock, K. (1882. Stange, M. 1995). *에다*(임한순·최윤영·김길웅 역. 2004).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Southern, R. W. (1952/1999). *중세의 형성*(이길상 역). 서울: 현대지성사.
- Tacitus, P. C. (98/2000).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이광숙 편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Weisgerber, J. L. (1929/2004). *모국어와 정신형성*(허발 역). 서울: 문예출판사.

3. 외국어 문헌

- Aksholakova, A. (2014). Proper name as a clue symbol of Identi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no. 112, 465-471.
- Ashley, L. R. N. (1989). *What's in a Name?* Baltimore, Md.: Genealogical Publishing Co.
- Bursell, M. (2007). What's in a name? - A field experiment test for the existence of ethnic discrimination in the hiring process. Working Paper 2007:7. Stockholm: The Stockholm University Linnaeus Center for Integration Studies.
- Cheang, J. (2008). Choice of Foreign Names as a Strategy for Identity Managemen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7(2), 197-202.
- Craig, P. S. (1996). New Sweden Settlers 1638-1664. *Swedish American Genealogist* 16, 63-86.
- Cronberg, O. (2010). Naming Traditions. *Rooted in Sweden*, no. 9, 3-4.
- Erikse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Eriksen, E. H. (1968). Identity, Psychosocial, In Shills, D. L.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New York: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 Falk, A. (1975). Identity and Name Changes. *Psychoanalytic Review*, 62(4), 647-656.
- Feldman, H. (1959). The Problem of Personal Names as a Universal Element in Culture. *American Imago*, vol. 16, 237-250.
- Fellows-Jensen, G. (1995). *The Vikings and Their Victims: The Verdict of the Name*.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Gallagher, A. C. & Chen, T. (2008). Estimating Age, Gender, and Identity using First Name Priors. *Computer Society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CVPR 2008)*, Anchorage, Alaska.
- Graham-Campbell, J. (1980). *The Vikings*. London: The British Museum Publications Ltd.
- Helleland, B., Ore, C.-E. & Wikstrøm, S. (eds.) (2012). *Names and Identities*. Oslo: University of Oslo.
- Jansson, S. B. F. (1966). *Swedish Vikings in England*. Edinburgh: T. & A. Constable Ltd.
- Jones, G. F. (1990). *German-American Names*. Baltimore, Md.: Genealogical Publishing Co.
- Jonmyren, K. (2004). Names in Sweden Throughout History. *Swedish American Genealogist*, 24(3), 23-25.
- Joubert, C. E. (1993). Personal names as a psychological variable. *Psychological Reports*, 73, 1123-1145.
- Kegley Jr., C. W. & Wittkopf, E. R. (2004), *World Politics*. London: Thomson Wardsworth.
- Khosravi, S. (2012). White masks/Muslim names: immigrants and name-changing in Sweden. *Race & Classes*, 53(3), 65-80.
- Linde, R. (1994). Om namnbyten och namnlagar i Sverige. I *Sveriges Släktforskarförbund Årsbok 1994*(pp. 225-260). Stockholm: Sveriges Släktforskarförbund.
- Meyer, U. (2007). In the Name of Identity: Teaching cultural awareness in the

- intercultural classroom. *Revised version of a paper given at the conference Changing Identities in a globalized world. 29th November-1st Decembe.* Vilnius University, Lithuania.
- Olwig, K. (1992). *The European Nation's Nordic Nature.* Copenhagen: The Nordic Council.
- Otterbjörk, R. (1975). *Svenska Förnamn.* Stockholm: Esselte Stadium.
- Peterson, L. (2007). *Nordiskt runnammslexikon.* Uppsala: Uppsala Universitet.
- Pilcher, J. (2016). Names, Bodies and Identities. *Sociology, no. 50,* 1-16.
- Smith, A. D. (1992).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a of European unity, *International Affairs, 68(1).*
- Skatteverket. (2007). *Population registration in Sweden.* Stockholm: Swedish Tax Agency.
- Tschaep, M. D. (2003). Halo of Identity: The Significance of First Names and Naming. *Janus Head, 6(1),* 67-78.
- Vanguri, S. M. (eds.) (2016). *Rhetorics of Names and Naming.* New York: Routledge.
- Watzlawik, M., Guimarães, D. S., Han, M. & Jung, A. J. (2016). First Names As Signs of Personal Identity: An Intercultural Comparison. *Psychology & Society, 8(1),* 1-21.
- Wæver, O. (1992). Nordic nostalgia: Norther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Affairs, 68(1).*
- Wells, G. A. (1993). *What's in a Name?* Chicago and LaSalle, IL: Open Court.
- Weibull, J. (1993). *Swedish History in Outline.* Stockholm: The Swedish Institute.
- Wong, J. (2002). What's in a Name? An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ie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2(4),* 451-463.

4. 인터넷 문서(e숏자 형식으로 본문에 인용)

- Avenberg, B. (e1). *Namnskicket i äldre tider.*
(<http://www.kavlingesof.se/Namnskicketaldretider.pdf>)

- Darlington, R. (e2). *What's in a Name?*
(<http://www.rogerdarlington.co.uk/useofnames.html>)
- Deluzain, E. (e3). *Names and Behavior.*
(<http://www.behindthename.com/articles/1.php>)
- Deluzain, E. (e4). *Names and Personality.*
(<http://www.behindthename.com/articles/2.php>)
- Deluzain, E. (e5). *Names and Persona Identity.*
(<http://www.behindthename.com/articles/3.php>)
- Högman, H. (e6). *Namnlagar i Sverige.*
(<http://www.hhogman.se/namnlagar-sverige.htm>)
- Högman, H. (e7). *Svenskt namnskick i gångna tider.*
(http://www.hhogman.se/namnskick_sv.htm)
- Martenius, I. (e8). *Namn i Sverige.*
(<https://riksarkivet.se/Media/pdf-filer/gla/folder2014.pdf>)
(<https://docplayer.se/421502-Namn-i-sverige-fornamn.html>)
- Viking, A. L. (e9). *Names of Scandinavians in the Byzantine Varangian Guard and in Russia.*(<http://www.vikinganswerlady.com/VarangianNames.shtml#EastFarers>)

5.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behindthename.com>(이름 관련 정보)
- <http://www.nordicnames.de>(이름 관련 정보)
- <http://www.scb.se>(스웨덴 통계청)
- <http://www.skatteverket.se>(스웨덴 국세청)
- <http://www.s-gabriel.org/names>(이름 관련 정보)
- <http://www.wikipedia.org>(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http://www.worldvaluessurvey.org>(세계가치관 조사 통계)

<Abstract>

Patterns and History of Identity Expressed in the Name of Swedes*

Kim, Ki Su **

The personal name is not only the most basic means of expressing oneself to anyone, it also gives them a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munity, including their families. In addition, it is said to be linked to the most basic elements in the formation of human identities, as it is a basis for forming a sense of social trust and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correlation between names and identities through changes in names that were mainly used by Swedish people. The main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the major names of Swedish people in each perio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trend of Swedish name change was influenced by various historical and cultural variabl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the multiple level were reflected.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it is continuously changing and diversifying as a means of expressing identity.

Key Words: name, identity, personal name, naming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Scandinavian Society of Korea for 2018.

** Department of Scandinavian Languag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성명: 김기수(Kim, Ki Su)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강사
E-mail: serwetus@hanmail.net

논문 접수일: 2020.6.25. 논문심사 완료일: 2020.7.7.
수정원고 접수일: 2020.7.11. 게재 확정일: 2020.7.11.

